



4일만에 완성하는 기적의 영문법

# 4일의 기적

[입문편]

...

조현경 지음

“

누구나 4일이면  
영어구문의  
원리를  
마스터 할 수 있다.

## 글을 시작하며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스펙용 어학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회화 공부를 해야 하는지, 특정 분야의 수험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사실 한국에 살면 이것들을 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만, 실제 어느 것도 제대로 공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 실제 분야가 정해진다고 해도, 결국 공통적인 하나의 큰 벽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영문법 말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육이 암기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영문법도 암기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문법 문제 풀이를 위해 암기했던 영문법은 회화나 독해에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부터 시작된 영문법 암기에 지쳐 영문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사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두려워하고, 결국 영어 공부에 영문법은 필요 없다는 무용론까지 언급되기도 하니 영어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이런 영문법 암기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즉 영문법을 암기하지 않고 좀더 쉽게, 이해해서 다가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수험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수험용 영어 문법책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데 방향성이 맞춰져 있지

만, 영문법은 제대로 공부하면 시험이든 회화든 다 도움이 되기 마련이니 사실 독자가 어떤 영어 공부를 하든 상관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모든 레슨은 원리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서술형으로 쓰였습니다.
2. 모든 레슨은 순서대로 읽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3. 본 서는 영어 구문의 '기본 법칙'의 설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본 법칙에는 당연히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 언급은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강의와 책에서 다룹니다.
4. 책에 각주가 달린 부분은 각 레슨이 끝나기 전에 읽어야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 미주는 추가적인 이야기들로, 많은 양을 덜어냈음에도 상당히 많은 영문법에 관한 '부가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서를 완독하기 전까지는 읽지 말고, 본 서의 내용이 어느정도 습득이 된 후에 영문법에 관한 흥미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는 현재 공단기에서 열리는 '4일의 기적'이라는 특강을 기본으로 쓰여 졌습니다만, 지면 관계상 특강의 모든 부분을 다 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에 보충적인 부분이 필요하신 분은 '4일의 기적'을 특강 참여나 온라인 수강을 통해 꼭 수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글의 순서나 예문도 실제 강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을 지면으로 옮겼기에, 의도치 않은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조 현 경

# 목차

## Day 1 .....○

Lesson 1	문장성분과 품사의 기본 개념	9
Lesson 2	문장의 최소 구성성분 - 주어 + 서술어 vs. 주어 + 동사	12
Lesson 3	수식어와 형용사/부사의 구별	16
Lesson 4	절과 접속사의 개념	19
Lesson 5	영어에서의 절과 접속사	22
Lesson 6	명사를 수식어로 사용하기 - 전치사의 역할	27
Lesson 7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부호 comma의 사용법	30
Lesson 8	동사의 법칙	34
Lesson 9	조동사 -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38
Lesson 10	조동사의 특별한 기능 - 동사의 도치를 대행	41
Lesson 11	조동사의 종류	44
Lesson 12	의문사의 성질	49
Lesson 13	명사절의 기본개념	53
Lesson 14	의문사 명사절 - 의문대명사	59
Lesson 15	의문사 명사절 - 의문부사	64
Lesson 16	that명사절과 wh~ 명사절의 성질 구별	68

## Day 2 .....○

Lesson 17	관계절과 관계대명사	73
Lesson 18	관계대명사의 선택	77
Lesson 19	전치사 +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81
Lesson 20	술부 5형식과 3, 1형식	85
Lesson 21	술부 5형식과 수식어	90
Lesson 22	영어에서의 목적어의 개념과 품사의 변화	96
Lesson 23	2형식과 보어	100
Lesson 24	2형식동사들	103
Lesson 25	보어와 수식어	107
Lesson 26	수동태의 이해	109
Lesson 27	be p.p.형과 수동태의 관계	114

## Day 3 .....○

Lesson 28	준동사 - 동사를 다른 품사로 사용한 것	119
Lesson 29	준동사의 세부 명칭과 형태	123
Lesson 30	준동사 간의 성질 이해	126
Lesson 31	준동사의 기본 개념과 선택	130
Lesson 32	준동사와 축약	136
Lesson 33	준동사를 목적어로 사용하기 - to부정사 vs. 동명사	141
Lesson 34	준동사를 주어로 사용하기	146
Lesson 35	준동사를 형용사로 사용하기	149
Lesson 36	분사와 관계절의 축약	153
Lesson 37	형용사의 위치	158
Lesson 38	to부정사를 형용사로 사용하기	162
Lesson 39	분사구문	167

## Day 4 .....○

Lesson 40	4형식과 수여동사	173
Lesson 41	비 수여동사 4형식	177
Lesson 42	4형식동사의 확장	180
Lesson 43	4형식 수동태	184
Lesson 44	4형식 vs. 5형식	188
Lesson 45	5형식의 기본 이해와 적용	192
Lesson 46	사역동사의 이해	196
Lesson 47	목적격 보어의 수동태	200
Lesson 48	지각동사	204
Lesson 49	5형식 수동태	207
※ 미주		210





# Day 1

- Lesson 1. 문장성분과 품사의 기본 개념
- Lesson 2. 문장의 최소 구성성분 - 주어 + 서술어 vs. 주어 + 동사
- Lesson 3. 수식어와 형용사/부사의 구별
- Lesson 4. 절과 접속사의 개념
- Lesson 5. 영어에서의 절과 접속사
- Lesson 6. 명사를 수식어로 사용하기 - 전치사의 역할
- Lesson 7.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부호 comma의 사용법
- Lesson 8. 동사의 법칙
- Lesson 9. 조동사 -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 Lesson 10. 조동사의 특별한 기능 - 동사의 도치를 대행
- Lesson 11. 조동사의 종류
- Lesson 12. 의문사의 성질
- Lesson 13. 명사절의 기본개념
- Lesson 14. 의문사 명사절 - 의문대명사
- Lesson 15. 의문사 명사절 - 의문부사
- Lesson 16. that명사절과 wh~ 명사절의 성질 구별



# Lesson 1

## 문장성분과 품사의 기본 개념

보통 영문법을 공부할 때 꼭 배우는, 또 가장 먼저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문장성분과 품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더 나아가 이 두 용어 간의 개념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영문법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 두 용어/개념이 왜 중요한지는 ‘4일의 기적’의 내용이 진행되면서 알게 되실 터이니 우선 두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성분은 마침표가 찍혀 완전한 의미를 끝맺은 문장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따져 보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굳이 정의 하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역할에 따라 명칭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om은 책을 읽는다.

위 문장은 ‘Tom은’, ‘책을’, ‘읽는다’ 이렇게 세 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의미적, 기능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져보고, 그 기능에 대해서 문법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바로 [문장성분]입니다.

그렇다면 ‘Tom은’ 은 문장 전체 메시지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바로 ‘전체

메시지의 주체가 누구/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문장성분으로는 [주어] 라고 합니다. 반면 '책을'은 '전체 메시지의 객체, 즉 메시지의 내용을 당하는 것이 누구/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은 [목적어]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읽는다'는? 문장 전체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메시지의 중심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것은 [서술어] 라고 합니다. 즉 위의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있고, 이 세 부분이 어울려서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성분은 이렇게 '□□어'라는 말로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품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사]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나 기능을 지닌 단어끼리 묶는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 의미적으로 '이름'을 전달하는 단어'들을 묶어서 [명사] 라고 하고, '동작을 전달하는 단어'들을 묶어서 [동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개념은, 특정 문장성분이 될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u>Tom</u> 은	<u>책</u> 을	<u>읽</u> 는다.
문장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여기서 주어로 쓰인 기본 단어는 'Tom'인데, 이런 단어는 이름을 전달하는 단어이니 품사적으로 따지면 '명사'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명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주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약속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명사로 분류되는 단어들은 의미가 올바르게 문장 내에서 주어로 쓰여도 어색함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목적어인

‘책’도 사물의 이름이니 ‘명사’에 속하고, 그럼 ‘목적어 역할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다’라는 약속 역시 성립합니다. 그렇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읽는다’라는 단어는 ‘동사’에 속하고, ‘서술어 역할로 쓰이는 품사는 (대개) 동사다’라는 약속이 성립합니다. 즉 하나의 문장을 문장성분과 품사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품사		명사	명사	동사
		<u>Tom은</u>	<u>책을</u>	<u>읽는다.</u>
문장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성분과 품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문장을 읽고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 개념입니다.

## Lesson 1

### 핵심 포인트!

1. 문장의 구성요소를 역할에 따라 분류하여 명칭을 붙인 것이 [문장성분]이다.
2. 단어들을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묶어서 명칭을 붙인 것이 [품사]이다.
3. 특정 문장성분이 되는 것은 특정 품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Lesson 2

### 문장의 최소 구성성분 - 주어 + 서술어 vs. 주어 + 동사

영어 수업 시간에 한국 수강생들에게 “문장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대개 “주어 동사요!”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왜 주어 동사예요?”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요. 즉 어디선가 배운 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앞으로 배울 모든 문법들에 대해 “왜 그렇게 될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고, 결국 영문법이 지켜온 암기 과목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니, 제대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레슨에서 배웠던 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품사		명사	명사	동사
		<u>Tom은</u>	<u>책을</u>	<u>읽는다.</u>
문장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국어 문법을 배울 때 문장의 최소 구성요소는 ‘주어 + 서술어’라고 배웁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문법에선 ‘주어 + 동사’라고 배울까요? 위의 문장을 영작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품사		명사	동사	명사
		<u>Tom</u>	<u>reads</u>	<u>books.</u>
문장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영어 문장도 한국어처럼 똑같이 문장성분과 품사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문장의 최소 구성요소도 한국어 문장과 똑같이 ‘주어 + 서술어’의 구조로 볼 수 있고, 실제 영문법에선 ‘predicate’라는 단어가 서술어라는 단어입니다. 헌데 왜 영문법에서는 ‘주어 + 동사’라는, 문장성분과 품사의 개념을 섞은 것을 문장 최소구성요소로 볼까요? 기본적인 비밀은 ‘주어표시방법’이라는 문법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언어에서 문장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언어마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어는 ‘주격조사’ (대개 ‘은, 는, 이, 가’)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 방법입니다. 즉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주어에 해당하는 말 뒤에 주격조사를 붙여서 주어임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이며, 한국어 문장을 듣거나 읽는 사람은 ‘은, 는, 이, 가’가 붙은 말들은 대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듣거나 읽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이런 조사 없이 위치로 주어를 나타냅니다. 즉 서술어 역할(문장의 메인 메시지)을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그 동사의 주체에 해당하는 말은 동사 앞에, 객체에 해당하는 말은 동사 뒤에 적는 것이 기본 방법입니다. 즉 영어는 동사를 찾지 못하면 주어를 알아볼 수 없는 언어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명사	형용사
		<u>Tom은</u>	<u>친절하다.</u>
문장성분		주어	서술어

위의 예문에서 한국어의 최소 구성요소는 계속 ‘주어 + 서술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위 예문의 서술어는 동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한국어의 서술어는 동사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형용사에 서술형 어미를 사용하거나 명사에 서술격조사를 사용함으로써 서술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u>Tom</u>	<u>is</u>	<u>kind.</u>
문장성분		주어	서술어 (술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영어에서는 형용사만 가지고는 서술어로 완전한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으로써 활용이 되려면 be동사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왜 그럴까요?

바로 동사의 주어표시기능 때문입니다. 한국어에선 서술어가 없어도 어떤 명사든 주격조사를 붙이면 주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om은...”이런 문장을 써도, 서술어가 없어 뭔가 메시지는 상상에 맡기는 여운을 줄 뿐 Tom이 주어라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Tom...”이라고만 쓰면 ‘is’ 없이 ‘Tom’만 가지고는 주어인 지 알 수 없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로 동사가 있어야만 주어를 알아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특징은

서술어 = 동사 or 동사 포함

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되고, 문장의 최소 기본요소도 ‘주어 + 서술어’가 아닌 ‘주어 + 동사’로 정리 됩니다. 여기서 아울러 알 수 있는 것은 영어 문장은 동사를 알아볼 수 있어야 전체 문장을 알아볼 수 있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 철저히 ‘동사 중심 언어’라는 점입니다.

Lesson  
2

핵심 포인트!

1. 기본적인 언어의 문장 최소 성분은 ‘주어+서술어’이다.
2. 영어에서는 동사가 주어표시기능을 담당하므로, ‘주어+동사’가 문장 최소 성분이 된다.
3. 영어는 동사가 문장의 성분을 알아보는 기준으로, ‘동사 중심 언어’이다.

## Lesson 3

### 수식어와 형용사/부사의 구별

이제 기본 문장성분과 품사에 이어, 추가적인 문장성분과 품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은 어려운 책을 읽는다.

앞서 공부한 기본 예문을 조금 확장한 예문으로, ‘어려운’이라는 단어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문에는 이미 주어/서술어/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은 이것들 이외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잘 살펴보면 ‘어려운’은 책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어구가 다른 단어/어구를 명확히 해주는 관계를 ‘수식관계’라고 하고 ‘어려운’을 [수식어], ‘책’을 [피수식어]라고 합니다. 보통 ‘꾸며준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영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며준다’라는 표현보다는 ‘한정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려운’은 ‘책’의 상태를 한정함으로써 그냥 아무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즉 ‘어려운’이라는 범위로 좁혀진, 한정된 범위의 책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굳이 ‘한정한다’라는 말로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더 중요한 포인트에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고, 지금은 ‘명확히 해준다’ 정도로 이해해도 됩니다. 즉 수식어는 피수식어를 좀 더 명확한 의미로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의 예문에서 수식어인 ‘어려운’은 품사적으로 봤을 때 명사인 ‘책’을 수식하고 있고,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는 영문법에서는 품사적으로 [형용사]로 분류합니다. 즉 형용사라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나 어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작하여 분석하면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u>Tom</u>	<u>reads</u>	<u>difficult</u>	<u>books.</u>
문장성분		주어	서술어	수식어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예문에 한 가지 성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Tom은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

이 문장에서 ‘빨리’는 ‘읽는다’라는 말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식어인 것이지요. 다만 ‘어려운’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수식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려운’은 명사를 수식하는 말로 품사적으로 ‘형용사’로 분류되는데, ‘빨리’는 품사적으로 보면 ‘동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식어 중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말은 영문법에서는 [부사]로 분류합니다. 즉 ‘빨리’는 문장성분으로는 수식어이되 품사로서는 부사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실제 영어 문장에서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 즉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 문장 전체 등등 다 수식합니다. 다르게 보면 형용사가 수식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부사’가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쉽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

러지게 많이 수식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위의 문장을 다시 영작하여 분석하면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u>Tom</u>	<u>reads</u>	<u>difficult</u>	<u>books</u>	<u>fast.</u>
문장성분		주어	서술어	수식어	목적어	수식어

이렇게 됩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위치가 동사 앞이 아니라 문장 맨 마지막에 왔는데, 지금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위치는 꼭 동사 앞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리에서 수식한다 정도만 알아 두도록 하고, 자세한 부사의 위치는 나중에 부사편을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Lesson 3

### 핵심 포인트!

1.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을 명확하게 한정하는 부분을 [수식어]라고 한다.
2.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는 [형용사]로 분류한다.
3. 명사 이외의 것을 수식하는 수식어는 [부사]로, 주로 동사를 수식한다.

## Lesson 4

### 절과 접속사의 개념

이제까지 레슨에서 기본적인 문장성분과 품사를 익혔는데, 이제 좀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을 분석하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좀 더 확장하여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은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

→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쓰였던 문장을 그냥 끝내지 않고 더 큰 문장에 붙여 썼고, 이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라면 당연히 주어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예문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주격조사 ‘은, 는, 이, 가’ 중에 하나가 붙어 있는 ‘Tom이’ 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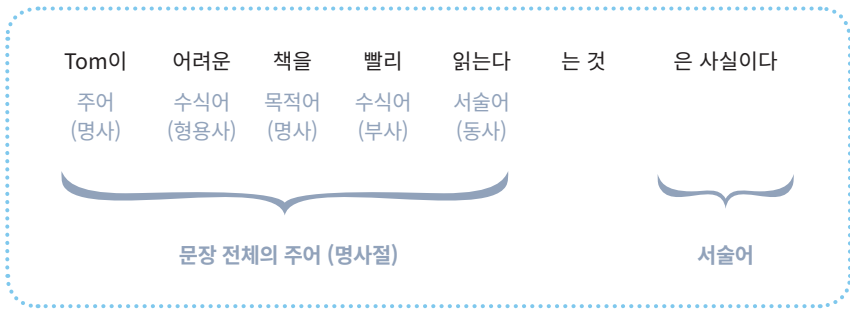
주어를 찾기 전에 중요한 점을 먼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어란 무엇일까요? ‘은, 는, 이, 가’가 붙으면 무조건 주어일까요? 아닙니다. 주어란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어입니다. 즉 주격조사가 붙는다고 무조건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주어가 되어야 할 단어/어구에 주격조사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의미적으로 주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서술어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실이다’입니다. 그럼 주어는? ‘Tom’만으로는 ‘사실이다’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요. 좀 더 생각해보면,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는 것은’까지

가 전부 주어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격조사 ‘은’이 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따져봐야 할 것은, 그럼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는 것’은 명사일까요? 주어는 품사적으로 따지면 명사가 담당하는 역할이었으니,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는 것’ 역시 명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문법에서 품사에 관한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점은 단어만 품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품사라는 문법적 개념이 단어들을 성질에 따라 묶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실제 품사는 문장성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꼭 단어만 품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장성분의 역할을 하는 것은 관련 품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즉 무엇이 되었든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품사적으로는 명사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는 것’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명사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명사들은 단어로써 사전에 찾으면 명사라고 등재가 되어 있는 것들인 것에 반해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는 것’은 사전에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까지는 홀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구조를 갖춘 것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장에 붙어서 성분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즉 영문법에선 이렇게 ‘주어 + 동사’의 구조를 갖춘 것이 더 큰 문장에서 성분으로 쓰이는 것을 문법용어로는 [절]이라고 합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단어가 아닌 절이 주어로 쓰였고, 품사적으로 보면 절이 명사 역할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절이 명사 역할을 할 때 문법용어로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대개 (예외적인 부분은 해당부분에서 따로 배웁니다.) 절이라 불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 + 동사’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됩니다. 이제 해당 예문을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기처럼 문장 전체의 주어가 절인 경우는 절 자기 자신이 하나의 문장처럼 완전히 분석될 수 있는 문장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Lesson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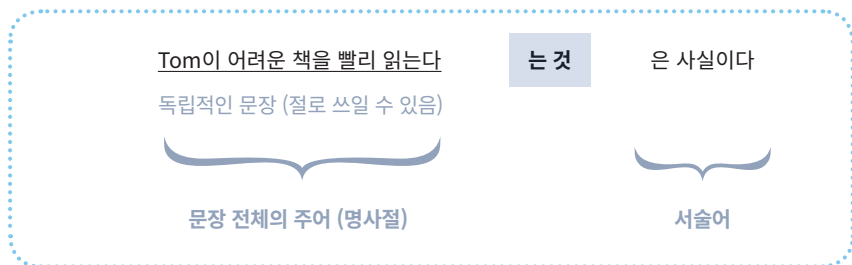
#### 핵심 포인트!

1. 주어는 의미적으로 서술어(영어에서는 동사)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2. 단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로 취급한다.
3. 독립적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어구가 더 큰 문장에 붙여 쓰이면 [절]이라고 부르며, 절이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부른다.

# Lesson 5

## 영어에서의 절과 접속사

이제 우리는 절의 개념까지 배웠습니다. 독립적으로 문장이 될 수 있는 어구가 더 큰 문장에서 붙어 쓰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쓰일 때 구조에 따라서는 품사 중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더 확장하여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 예문에서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라는 문장이 더 큰 문장에 붙여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이 다른 문장에 쓰일 때, 그냥 쓰일 수 있을까요? 즉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은) 사실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예문의 어색함에서 느껴지듯이, 그냥 절이 문장에 마구 붙여져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의 예문에는 왜

어색함이 없었을까요? 바로 ‘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의 네모 친 ‘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절을 더 큰 문장에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절이 문장에 쓰으려면 그냥 붙지는 못하고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절을 문장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영문법에선 [접속사]라고 합니다. 즉 영어에서도 절이 더 큰 문장에 붙어 쓰으려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위의 문장을 영작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어로 쓰인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라는 독립적인 문장이 되는 부분이 주어로 쓰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 부분을 완전한 문장구조를 갖춘 채로 번역을 해보면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

는 것

은 사실이다

Tom reads difficult books fast

is tru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느 부분이 아직 영작이 안 되었을까요?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하는 ‘는 것’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 이 부분까지 번역하기 전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는 것’의 의미입니다.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은) 사실이다.

위의 예문은 절을 접속해 주는 부분이 없어서 읽으면 분명히 어색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이해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문맥상의 추측 없이도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는 것’이 없어서 어색해진 것은 접속사의 기능적인 부분이지, 의미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즉 ‘는 것’의 특징은 ‘접속사로 기능은 하되 별다른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언어적 특성인데, 한국어는 기능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중요한 것이 뒤에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기능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앞에 쓰인다는 점이 한국어와의 차이점입니다. 즉 한국어에서는 접속사 기능을 하는 단어나 어미변화가 절 뒤에 붙거나 절 뒤에서 일어나는데,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절 앞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의 예문이 완전히 영작이 되려면 어떤 접속사가 “Tom reads difficult books fast” 앞에 쓰여야 하며, 이 접속사는 기능은 있지만 의미는 없는 접속사가 와야 합니다. 이렇게 기능은 하되 큰 의미는 없는 접속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that’ 입니다. 즉

	Tom이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다	는 것	은 사실이다
That	Tom reads difficult books fast		is true

이렇게 쓰이면 한국어 문장이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번역된 영문장의 주어 부분만 다시 분석해 보면



### 명사절접속사 that

That

Tom reads difficult books fast is true

주어 (명사절)

이렇게 됩니다. 이 때 쓰인 that은 [명사절접속사 that]이라 명칭을 제대로 불러주는 연습이 꼭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that은 절을 문장에 붙여주는 기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딱히 정해진 의미는 없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은 있지만 의미는 없는’ 접속사 that은 영어 문장에선 무궁무진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활용도가 높다 보니 숙어에 정말 많이 쓰이고, 또 숙어가 아니더라도 ‘영어 문장에서 뭔가 절을 붙여 쓰고 싶는데 딱히 의미가 생각이 안 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that을 붙여 쓰면 거의 통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의 예문처럼 명사절 뿐만 아니라 형용사절(관계절)이나 부사절과도 같이 쓰입니다. 따라서 that은 명사절, 형용사절(관계절), 그리고 부사절과 쓰일 때 각각 절의 구조나 문장에서의 위치, 해석법이 다 다르고, 그래서 기능에 따른 명칭을 구별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문장을 읽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석도 안 되고 또 문법 문제에서 조금만 함정을 파면 틀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예문 같은 경우는 ‘명사절접속사 that’이라고 꼭 구분해서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영문법에서 절과 접속사는 크게 등위/종속이라는 개념 2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문장 내에서 ‘품사’로 쓰이는 절은 [종속절] (큰 문장에 하위 구조로 종속된다는 개념) 이라고 하고,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종속접속사]라고 합니다. that은 영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속접속사로서,

앞으로의 영문법 학습에 아주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Lesson  
5

핵심 포인트!

1. 절이 더 큰 문장에 붙여 쓰으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2. 절이 문장 내에서 품사 역할을 하면서 쓰이는 경우를 [종속절]이라 총칭한다.
3. 가장 대표적인 종속접속사는 **that**으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다 이끌 수 있다.

## Lesson 6

### 명사를 수식어로 사용하기 - 전치사의 역할

먼저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 ate an apple on a table.

Tom은 테이블위의 사과를 먹었다.

간단한 문장이라 해석이 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on’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Tom ate an apple a table. (X)

Tom은 사과를 테이블 먹었다. (?)

‘on’을 제거하는 순간 위의 문장은 일단 의미적으로 알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문법적인 이유와 맞물려 있습니다. ‘a table’이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앞 레슨에서 명사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문장에서 명사가 어떤 다른 단어의 의미적/기능적 도움이 없이 그냥 쓰여도 말이 통하는 건 그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아닌데 문장에 쓰이려면 그냥은 쓰일 수 없고<sup>1)</sup>, 다른 단어의 의미적/기능적인 도움을 받아

1) 보어로는 그냥 쓰일 수 있으나, 2일차 레슨에서 다룬다.

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 예문의 ‘on은 바로 명사인 ‘a table’과 결합하여 ‘a table’에 의미적/기능적인 보완을 하여 문장에 쓰이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기능은 바로 단어 자체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치’라는 앞에 위치한다는 말 자체가 어떤 단어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긴 용어입니다. 즉 전치사는 원래 다른 단어 앞에서 어울려 같이 쓰이는 단어로, 태생 자체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야 의미적인 전달이 가능하고<sup>2)</sup> 현대 영어에서 전치사는 거의 명사 앞에 쓰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어울려 함께 쓰이는 것을 보통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전치사+명사 구)라고 하고, 이렇게 쓰인 전치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명사를 1. 의미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2. 기능적으로도 변화를 주어 문장 내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원래의 예문으로 돌아가면

Tom ate an apple on a table.

Tom은 테이블위의 사과를 먹었다.

여기서 ‘on a table’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어 쓰이고 있어 ‘on’과 ‘a table’은 의미적으로 따로 떼어 이해될 수 없으며, 문법적으로도 명사가 전치사와 덩어리를 이루어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수식어의 역할로 쓰이게 됩니다. 본문을 해석해보면 ‘on a table’이 가장 가까운 명사 ‘an apple’을 특정 (한정한다

2) 전치사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 홀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은 단어지만 쓰임새를 부사로 따로 분류한다.

고 이미 배웠지요?) 하고 있으니 수식어 중에서도 형용사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어로도 ‘테이블 위의’가 가장 알맞은 해석입니다.

Tom ate an apple in the house.

Tom은 집 안에서 사과를 먹었다.

거의 같은 구조지만 ‘in the house’는 의미적으로 ‘an apple’을 한정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위치를 한정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ate’, 즉 동작이 일어난 장소를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어로도 ‘집 안의’ 보다는 ‘집 안에서’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서 ‘in the house’는 형용사가 아닌 부사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치사구는 문장 내에서 대개 수식어,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쓰이고, 형용사인지는 부사인지는 전치사구의 의미와 위치로 판단합니다.

Lesson  
6

핵심 포인트!

1. [전치사]는 다른 단어 앞에 쓰이는 단어들로, 주로 명사와 같이 쓰인다.
2. 전치사가 명사와 어울려 쓰이는 것을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라고 하며, 이는 전치사가 쓰인 구, 또는 전치사 + 명사 구라는 뜻으로 그 형태를 보고 일컫는 용어이다.
3. 전치사구는 문장 내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며, 품사적으로는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게 된다.

## Lesson 7

###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부호 comma의 사용법

빨리 포장된 선물을 보내주세요.

위의 예문을 잘 읽어봅시다. 아무런 의문 없이 이해가 잘 되나요? 만약 아무런 의문 없이 바로 이해가 잘 된다면 아마 ‘한국어 구조에 충분히 익숙해진’ 분이실 겁니다. 사실 한국어에선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선 위의 문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바로 ‘빨리’의 위치입니다. ‘빨리’는 과연 문장 내의 어느 부분을 수식해야 상식적일까요? 아마 당연히 ‘보내주세요’일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보통 조사와의 결합이나 어미변화로 단어의 쓰임새를 나타내고, 이런 조사와 어미변화가 단어의 품사적 역할을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 해당 단어나 어구의 위치보다는 상식선에서 해석이 맞는 것으로 찾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sup>3)</sup>

하지만 앞서 배웠듯 영어에서는 각 단어/어구의 ‘위치’가 중요한 언어로, 원칙적으로 수식어는 의미적으로 수식 가능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가도록 되

3) 기본적으로 어느 언어나 상식선에서 수식어의 해석을 찾아가는 건 다 있는 성질이다. 다만 영어는 한국어 보다 훨씬 위치에 민감한 언어이다.

어 있습니다.<sup>4)</sup> 그렇다면 ‘빨리’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누구를 수식해야 될까요? 바로 ‘포장된’과 어울리게 됩니다. 부사는 동사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만 가능하다면 순수한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하므로, 지금 이 법칙을 적용하면 ‘빨리 포장된’이라는 말이 하나로 어우러진 어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의미일까요? 상식선에서는 아닙니다. 당연히 ‘빨리 보내주세요’가 더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은 어떻게 써야 더 명확한 문장이 될까요?

**포장된 선물을 빨리 보내주세요.**

이러면 훨씬 명확한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부사의 위치가 별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문법을 처음 배울 때 “부사는 아무 데나 써도 돼”라는 말을 들곤 하는데, 만약 진짜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하므로, 아무 데나 위치시키면 아무거나 마구 수식하게 됩니다. 즉 부사를 아무 데나 위치시킨다는 개념은 간단한 단문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실제 부사는 의미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진 위치가 있고, 기본 법칙은 수식 대상 전/후에 쓰는 것입니다.

만약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2개 이상이 같이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이상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수식이 안 되니 명사를 한정수식 하는 형용사는 여러 개가 명사 앞에 나열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열되어도 그 형용사들은 서로 수식하는 것

4) 한국어에서의 형용사와 부사는 무조건 어미가 다른데 반해 영어의 수많은 단어나 어구는 형용사와 부사가 다 되고, 그것을 오로지 위치로 판별한다. E.g.: 빠른 ↔ 빠르게 / fast ↔ fast; 높은 ↔ 높게 / high ↔ high

이 아니고 각각 명사를 수식합니다. 하지만 부사는 동사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사를 실제 의도된 의미가 아님에도 그냥 동사 앞에 나열하면 서로 의미가 엉켜 매우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해야 하는 부사가 2개 이상이면, 그것들을 동시에 동사 앞에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의 부사는 다시 문두나 문미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두에 위치한 부사는 또 첫 예문처럼 다른 형용사와 어울릴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문두에 위치한 부사가 형용사와 어울리지 않고 동사와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comma(,)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쉼표라고 부르는 comma는 간단히 ‘끊어 읽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금 배울 용법부터 심화서에서 다루어 질 모든 comma의 용법은 바로 이 ‘끊는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즉

**빨리, 포장된 선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쓰면 ‘빨리’는 ‘포장된’을 수식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comma는 자신을 기준으로 문장을 끊어서 앞/뒤를 각각의 묶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위 예문에서는 ‘빨리’가 하나의 묶음이 되고 ‘포장된 선물을 보내주세요’가 한 묶음이 되어 ‘빨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결국 문장의 어느 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의미가 어울릴까요? 문장 전체의 주 메시지는 동사가 전달하므로, 바로 동사가 됩니다. 즉 이렇게 문두에서 comma로 분리된 부사의 역할은 동사 수식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sup>i</sup>



To go home early, Tom worked hard.

집에 일찍 가기 위해서, Tom은 열심히 일했다.

Because she is kind, everyone likes Jane.

그녀가 친절하기 때문에 모두들 Jane을 좋아한다.

예문의 밑줄 친 부분은 전부 주절 앞에서 comma로 분리된 부분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도 동사 수식과 많이 통하지요? 더 나아가 첫 예문의 ‘to go home early’는 단어 4개로 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문장이 되지 않으므로 구, 즉 [부사구]임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예문의 ‘because she is kind’는 같이 단어 4개의 어구이지만 독립적으로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절, 즉 [부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절이라면 ‘because’는 절을 이끌었으므로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Lesson  
7

핵심 포인트!

1.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나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동사 앞에 나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2.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최적의 자리는 동사 바로 앞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문두에 쓰일 수 있으며,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개 comma로 분리시킨다.
3. 문두에 comma로 분리된 부사자리에는 하나의 단어로 된 부사뿐 아니라 다양한 구나 절이 부사 역할로 위치할 수 있다.

# Lesson 8

## 동사의 법칙

영어 공부를 하면 흔히 “영어에서는 동사가 가장 중요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영어는 동사가 있어야 무엇이 주어인지 알 수 있는 문장구조’, 다시 말하면 ‘동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구성요소가 펼쳐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영어를 ‘어순의 언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영어의 어순에는 동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동사에는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제전달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om은 책을 읽는다. → Tom은 책을 읽었다.

예문을 보시면 바뀐 부분이 있고, 문장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로 시제, 즉 문장에 서술된 행위나 상태 등의 시점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제를 변경하여 표현하려면 바로 서술어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에서 시제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에서 서술어가 전달하는 것들은 영어에서는 대개 동사가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Tom reads books. → Tom read books.

이렇게 동사에 변화를 주어야 시제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즉 영어에서 동사는 1. 주어표시 2. 시제표시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행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개는 동작성을 가진 의미를 전달하는 품사이므로, 3. 자신의 의미 전달까지 총 3가지의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영어에서 동사의 역할을 정리하면

#### - 동사의 기능 -

1. 주어표시
2. 시제표시
3. 단어 자체의 의미 전달

이런 동사의 역할 때문에 동사만의 특징이 3가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문장에 주동사는 1개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동사가 그냥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것이 문장의 주어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동사는 무조건 1개만 존재해야 하는 게 영어 문장의 특징입니다. 헌데 문장을 읽다 보면 실제로는 동사가 두 개 이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주동사가 아닌 동사들은 그냥은 문장에 쓸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절로 만들어 접속사를 붙여 써야 합니다. 즉 영어에서는

$$\text{접속사 총 수} = \text{동사 총 수} - 1 (\text{주동사})$$

라는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sup>5)</sup>

5) 한 문장에서 주동사 이외의 동사를 꼭 주어를 다 써서 절로만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 to부정사나 동명사/분사 류의 준동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데, 본 교재 3일차에서 다룬다.

두 번째 법칙, 동사는 도치될 수 없습니다. 단어나 어구가 원래 예상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자리로 바뀌어 쓰이는 것을 [도치]라고 하는데, 문장의 특정 성분/품사가 도치되었는지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바로 동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사가 도치된다면? 동사가 도치되고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있는 건지, 동사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부분이 움직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동사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도치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생략될 수 없습니다. 실제 언어에서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굳이 쓰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생략됩니다. 하지만 기준점 역할을 하는 동사가 생략된다면? 문장 전체의 구조와 의미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기본적으로 생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동사의 3대 기본 법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동사의 3대 법칙 -

1. 문장 전체의 본동사는 1개이다.
2. 동사는 도치될 수 없다.
3. 동사는 생략될 수 없다.

단, be 동사는 2번과 3번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레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동사는 (1)주어표시 (2)시제표시기능에 (3)단어 자체의 의미 전달이라는 3가지 특징을 가진다.
2. 동사는 영어 문장의 기준점으로서 (1)주동사는 1개 (2)도치불가 (3)생략불가 라는 기본 법칙성을 가지게 된다.
3. be동사는 기본 동사법칙의 예외이다.

# Lesson 9

## 조동사 -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흔히 어릴 때 will이나 can같은 단어들을 조동사로 배우고 외우곤 하는데, 이 조동사는 영어에서 동사법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동사의 뜻은 ‘돕는 동사’라는 뜻으로, 좀 더 정확히는 ‘동사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sup>ii</sup> 먼저 조동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발전이 동사와 의미적으로 어울리도록 발전해왔습니다. 즉 접속사/전치사가 홀로 쓰이지 않듯, 일반적으로 조동사도 자기 자신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Tom can difficult books. (X)  
→ Tom can read difficult books. (O)

위의 예문에서 ‘can’은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can’만으로는 의미가 완전히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조동사인 ‘can’은 ‘read’같은 동사가 같이 쓰여야 의미가 완전해지므로, 조동사는 항상 동사와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sup>6)</sup>

두 번째로, 조동사는 동사의 주요 기능인 주어표시와 시제표시기능 중 시제표시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쓰인 동사는 시제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sup>7)</sup> 따라서 항상 동사원형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조동사가 대동사로 쓰이면 홀로 쓰일 수 있으나, 심화서에서 다룬다.

7) 가정법에서 조동사가 시제표현을 다시 동사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심화서 가정법편에서 다룬다.

Tom will reads difficult books. (X)

→ Tom will read difficult books. (O)

예문에서 조동사 ‘will’은 이미 미래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제표현이 된 상태에서 다시 본동사를 ‘reads’로 써서 현재시제를 사용하면 실제 이 문장은 미래시제인지 현재시제인지 알 수 없겠지요? 그래서 동사가 조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시제를 표시하지 않고 동사 본연의 의미만 전달하는 동사원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사는 동사의 의미를 변화시키거나 확장시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부분인데, 문장에 조동사가 사용이 되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바뀝니다. 특히 영어를 시험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이 부분을 쉽게 넘겨 버려서 독해 풀이 하실 때 실수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Tom reads difficult books.

→ Tom will read difficult books.

→ Tom can read difficult books.

첫 예문은 조동사 없이 현재시제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소 에 하는 일을 표현하는 것<sup>8)</sup>입니다. 반면 ‘will’과 함께 사용되면 주어가 할 미래 행동을 나타내게 되고, ‘can’이 같이 사용되면 주어가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8) 현재시제는 지금을 의미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변하지 않은 일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심화서 시제편에서 다룬다.

가능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문장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작을 제대로 하게 되는 부분이니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Lesson  
9

핵심 포인트!

1.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들로, 홀로 쓰일 수 없다.
2. 조동사는 동사의 시제기능을 대신하므로, 항상 동사원형과 사용해야 한다.
3. 조동사는 동사의 의미를 변화시키거나 확장시키기 때문에 사용되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바뀐다.



# Lesson 10

## 조동사의 특별한 기능 - 동사의 도치를 대행

앞 레슨에서 기본적인 조동사의 성질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성질로 인해 조동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m은 집에 갈 거다. → Tom은 집에 갈 거니?

위의 예문은 평서문을 단순 의문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단순 의문문은 보통 yes/no question이라고도 하는데, 즉 긍정과 부정만을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입니다. 위의 예문으로 보자면 누가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서술어가 전달하는 사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국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 의문문은 주어나 수식어를 건드리지 않고 서술어만 모양을 바꾸어 표현합니다. 즉 서술어가 전달하는 내용의 참/거짓만을 물어보려면 문장의 다른 부분에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오로지 서술어만 어미를 변화시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즉 영어로 단순 의문문을 만든다면, 영어에서는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단순 의문문이 될까요? 한국어에서 서술어를 건드리는 것이 단순 의문문이라면, 영어에서는 당연히 동사 부분을 건드려야 합니다. 다만 한국어는 어미변화라는 것을 통해 의문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반

해, 영어에는 이런 어미변화라는 것이 없어,<sup>iii</sup> 동사의 도치를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동사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동사가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충분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를 영문장에서 한층 더 강조된 의미로 문장에 쓰면, 평서문과는 다른 의미, 즉 “진짜 그래?”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영어에서 기능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바로 문장 맨 앞입니다. 즉 문장성분이나 품사는 문장 내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위치가 있는데, 원래의 위치에서 전달하는 의미나 기능보다 더 중요한 의미나 기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장성분이나 품사가 위치를 바꾸는 것을 도치라고 하는데, 앞서 우리는 동사가 도치 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도치될 수 없는데 도치되어야 한다?

다시 그 내용을 곱씹어 보면 분명 ‘동사는 도치될 수 없다’라고 했지 ‘동사를 도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도치될 수 없다’와 ‘도치할 필요가 없다’는 전혀 다른 뜻으로, 실제 영어에서는 많은 경우 동사의 도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치가 될 수 없는 것이 기본 법칙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Tom will go home. → Will Tom go home?

예문의 평서문에 동사가 ‘go’ 한 개라면 당연히 동사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시된 예문의 동사는 조동사 ‘will’ 과 함께 사용되어서 두 단어가 ‘동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석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둘은 같이 어울려 이해되

는 부분으로, 다시 말하면 동사부를 이루는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움직여서 동사의 기능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움직여도 됩니다. 즉 ‘will go’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will’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어 위치 표시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조동사는 자기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쓰이면 무조건 본동사를 찾아서 같이 이해해야 하므로, 실질 서술의 주요 의미는 문장 내에 있는 본동사가 되고, 주어 ‘Tom’은 본동사 앞에 위치하므로 주어표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시제는? 앞서 배웠듯이 조동사가 쓰이면 기본적으로 조동사가 시제표시를 하므로, 시제전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자체의 의미 전달 역시 문장의 조동사는 동사와 어울려 함께 의미 전달이 되므로 동사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장에 쓰이면 자동적으로 동사를 찾아서 해석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도치될 필요가 있을 때 동사가 하나만 있으면 도치가 안 되지만,<sup>iv</sup> 동사가 조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조동사가 동사를 대신해 도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조동사의 이런 기능을 이용해 의문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조구문 등을 만들어 사용하므로, 구문이해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Lesson 10

### 핵심 포인트!

1. 동사가 도치될 필요가 있을 때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가 도치를 대신한다.
2. 단순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도치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3. 동사 도치는 의문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조구문에도 사용된다.

# Lesson 11

## 조동사의 종류

조동사는 언어학/영문법적으로 파고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흔히 조동사로 배우는 단어 외에도 여러 종류가 분류되며, 그 자체로도 하나의 전공과목이 될 정도 다양합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조동사의 의미적 특성이나 기능적 특성에 따라 다른 조동사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기초 영문법에서는 사실 어렵기만 하고 용어만 낯설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기능적 특성 위주로 조동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동사로 배우는 will, can, may, should 류가 있습니다. 이런 조동사는 당연히 동사 대신 도치될 수 있으며, 특히 의미적으로 문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완료시제<sup>9)</sup>의 have동사가 있습니다.

Tom has eaten lunch. → Has Tom eaten lunch?

예문에서 평서문의 'has eaten'은 따로 떼어 해석될 수 없는, 즉 두 단어 이상이 동사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입니다. 영어의 완료시제는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꼭 같이 쓰이는 경우로, 큰 특징이 have동사<sup>10)</sup>가 먼저 사용되고, 그 뒤에

9) 완료시제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선행 완료된 행위를 have동사의 시제에 가지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심화서의 시제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10) 인칭과 시제에 따라 have, has, had가 구별돼 사용된다.

실질 동작을 의미하는 본동사 역할로 과거분사<sup>11)</sup>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부터 동사부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앞 단어만 도치해볼 수 있겠지요? 어떤가요? ‘has’만 앞으로 보냈을 때 주어표시에 문제가 있나요? 주어는 실질 본동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eaten’ 앞에 계속 있으므로 주어표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시제는? ‘has’가 문두로 도치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완료시제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has’가 단어 하나인 본동사였다면 당연히 도치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즉 문두, 또는 주어 앞에 have 동사류가 보인다면 무조건 문장 내에서 과거분사를 찾아 완료시제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동사의 의미 전달 역시 마찬가지이며 완료시제에 사용된 have동사는 조동사의 기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be동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행시제(수동태도 동일)를 생각해봅시다.

Tom is eating lunch. → Is Tom eating lunch?

이 예문의 ‘is eating’도 하나로 어울려 시제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동사부가 단어 2개 이상으로, 완료시제의 have동사가 움직여도 되는 것처럼 진행시제 (또는 수동태)의 be동사<sup>12)</sup>도 도치 후에 동사의 기능 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진행시제 (또는 수동태)의 be동사는 도치가 가능합니다. 현대, be동사가 홀로 본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Tom is a student. → Is Tom a student?

11) 영어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 것으로, ‘해당 동작이 완료됨’을 의미한다.

12) 인칭과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 were가 구별돼 사용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법칙대로라면 동사가 홀로 쓰일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be동사는 동사법칙의 예외라고 배웠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동사와 다른 be동사만의 특징에 있습니다. 먼저 평서문을 잘 살펴봅시다. be동사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나요? 사실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sup>13)</sup> 기능적으로 보면 주어/시제표시 이외에도 주어와 be동사 뒤에 따라오는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이런 동사를 흔히 ‘linking verb’라고 합니다. 즉 앞뒤를 연결해주는 연결동사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be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를 명사로 연결하면 그 둘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만약 be동사를 제거하면 둘의 관계는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즉

Tom, a student, went home.

이렇게 동사 없이 명사를 연달아 쓰면 기본적으로 둘은 같은 관계가 됩니다. be동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앞뒤 명사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으로 be동사는 위치가 바뀌어도 두 명사의 관계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일반동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Tom teaches a student. → Tom a student

13) be동사도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술부 5형식과 동명사편에 다룬다.

예문의 ‘Tom’은 ‘teaches’라는 동사의 의미로 선생님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teaches’를 제거한다면? ‘Tom’이 선생님인 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붙어서 Tom은 기본적으로 학생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의미가 있는 동사들은 그 의미로 주어와 나머지 부분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어표시나 시제표시기능과는 별도로 그 자체 의미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생략되거나 도치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는 be동사는 주어표시나 시제표시가 굳이 필요 없다면 생략될 수 있고,<sup>14)</sup> 도치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 기본 법칙에서 be동사는 예외로 자기 자신이 조동사의 기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sup>15)</sup>

자 지금까지 3가지의 조동사류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약 조동사가 없는, 본동사 하나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Tom went home

자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went’를 도치해야 하는데, 본동사 하나라 도치가 안 됩니다.<sup>v</sup>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를 도치하면 될 텐데, 조동사가 없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즉 무언가 필요한데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만들거나 빌려 써야 합니다. 만약 동사 도치 등으로 조동사의 기능이 필요한데 없다면, 동사 단어 중 하나를 조동사처럼 가장시켜 빌려 쓰는 것을 생각해

14) 준동사/축약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15) 딱히 의미는 없이 기능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가 that(접속사), be(동사), it(명사), of(전치사)이다. 이 단어들은 영어에서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고, 각종 idiom이나 구문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므로 자세한 학습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do동사입니다.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be동사 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는 동사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딱히 뭘 하는지는 알 수 없는 동사로, 의미보다는 동사의 기능성으로 더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즉 조동사가 없는 문장은 do동사를 조동사인 셈치고 도치시키면 됩니다. 단, do동사가 조동사 대신 사용되면 시제표현을 do가 담당해야 합니다.

Tom went home. → Did Tom go home?

이렇게 do동사에 시제를 넣어 조동사처럼 사용하면 동사의 도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도치를 행할 수 있는 조동사의 종류입니다.

Lesson  
11

핵심 포인트!

1. 일반적으로 조동사로 배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치될 수 있다.
2. 완료시제 쓰이는 have동사는 도치될 수 있다.
3. be동사는 의미가 없어 기본적으로 동사법칙의 예외라 도치될 수 있다.
4.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조동사가 없다면, do동사를 조동사 대신 사용하여 도치시킨다.



# Lesson 12

## 의문사의 성질

의문사들은 보통 의문문을 만드는 단어라 하여 의문사라고 불리지만, 무조건 의문문만 이끄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의미적/기능적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의문문을 만들어 봅시다.

Tom bought a car. → Did Tom buy a car?

단순 의문문은 앞서 배웠듯이 긍정/부정의 대답만 가능한 것으로, Tom이 차를 샀다는 단순 사실 관계만을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헌데 이 문장의 ‘a car’를 ‘뭔가’라는 의미인 something으로 바꾸어 봅시다.

Tom bought something. → Did Tom buy something?

예문의 의문문을 간단히 구어체로 번역하면 “Tom은 뭐 샀니?”가 되는데 이 의문문은

1. Tom은 뭐 샀니? (‘샀니’에 강조를 두고 뒤를 올려 읽어보세요.)
2. Tom은 뭐 샀니? (‘뭐’에 강조를 두고 읽어보세요.)

둘 중 어느 의미인가요? 먼저 두 한국어 문장을 잘 해석해 봅시다. 예문에 보

이는 대로 강세를 다르게 해서 소리 내 읽어보세요. ‘샀니’에 강세를 두어 읽은 1번 문장의 의미는 단순 의문문으로 ‘샀니/안 샀니?’를 물어보는, 즉 “Tom은 뭔가를 샀니?”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뭘’에 강세를 두어 읽은 2번 문장은 샀다는 사실보다는 “Tom이 산 것은 무엇이니?”의 의미입니다. 즉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문장에서 강세 부분이 다르면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언어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럼 원 예문인 “Did Tom buy something?”은 둘 중 어느 의미일까요? 네, 단순 의문문이니 1번, 즉 “Tom이 뭔가를 샀니?”의 의미입니다. 그럼 만약 2번, 즉 “Tom이 산 것이 무엇이니?”라는 의미로 의문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의문문에서 ‘샀니/안 샀니’라는 사실(동사)보다 ‘무엇’이라는 물건(명사)이 더 중요한 의미라면?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바로 보통 wh로 시작되는 의문사들입니다. wh~ 의문사들은 그 특징이 문장에 사용되면 동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즉

Did Tom buy something? → Did Tom buy what?

이렇게 되면 조동사 도치로 나타내는 동사의 참/거짓 보다 ‘what’이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더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 그 ‘what’을 물어보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의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바로 문장 맨 앞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문장에 사용이 되면 문두로 도치가 됩니다. 즉

Did Tom buy what? → What did Tom buy?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의문사 의문문이고, 이제 화자가 가지는 의문은 동사의 참/거짓이 아니라 동사 이외의 것에 대해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Tom bought a car yesterday. → Did Tom buy a car yesterday?**

이것은 단순 의문문으로 ‘어제’라는 단어가 추가되긴 했지만 계속 ‘샀니/안 샀니’를 물어보는 의문문입니다. 이 ‘어제’를 ‘언젠가’로 바꾸면

**Tom bought a car someday. → Did Tom buy a car someday?**

가 되는데, 이렇게 써도 뜻은 “Tom이 언젠가 샀어?”라는, 사실 관계만을 묻어보는 단순 의문문이 됩니다. 이것을 “Tom이 차를 산 건 언제야?”라는 의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whe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Did Tom buy a car when? → When did Tom buy a car?**

이렇게 되면 사실 관계가 아니라 산 시점을 물어보는 의문문이 됩니다. 이처럼 wh~의문사들은 보통 ‘6하원칙’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로 사실 관계가 아니라, ‘누가(무엇이)’, ‘누구를(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등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의문문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문의 순서인 동사 도치문처럼 사용해야 의문사 의문문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What did Tom buy? (의문대명사)

When did Tom buy a car? (의문부사)

의문사는 동사 이외의 부분을 의문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동사 이외의 한 부분을 대신하여 사용됩니다. 첫 예문의 ‘what’은 ‘buy’의 목적으로 쓰여야 할 명사를 대신하면서 의문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문대명사]라고 불리고, ‘what’이 문장성분 중 명사가 쓰여야 할 부분을 대신하므로 ‘what’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면 주어나 목적어가 비는 불완전한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에 반해 ‘when’은 원래 ‘yesterday’ → ‘someday’에 해당하는 부사를 대신한 경우로 [의문부사]라 불리며 수식어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when’을 제외해도 나머지 문장은 기본적인 필수성분을 모두 지닌 완전한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Lesson  
12

핵심 포인트!

1. wh~의문사는 문장 내에 사용되면 동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당하게 된다.
2. 의문문에 wh~의문사가 사용되면 사실 관계가 아닌 6하원칙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 의문문이 되며, 그 의미 때문에 wh~ 의문사는 문두로 도치된다.
3. wh~의문사는 문장 내에서 동사 이외의 문장성분 하나를 대신하게 되며, 품사적으로 명사를 대신하면 [의문대명사], 부사를 대신하면 [의문부사]라 불린다.

# Lesson 13

## 명사절의 기본개념

앞선 레슨에서 기본적인 절과 접속사의 개념과, 특히 명사절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이를 좀더 확장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om bought a car.

예문을 잘 보면 동사가 2개 있습니다. 바로 ‘know’와 ‘bought’ 이고, 각각 ‘I’와 ‘Tom’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bought’의 목적어는 ‘a car’로 ‘bought’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장성분은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Tom bought a car” 전체를 ‘know’의 목적어로 쓸 수 있을까요? 즉 내가 아는 것은 ‘Tom’이나 ‘a car’가 아닌 “Tom bought a car”라는 ‘내용’으로 말합니다. 당연히 의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know’의 목적어는 단순한 명사가 아닌, 독립적으로 문장이 되는 것을 목적어로 삼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절을 목적어로 사용한다고 배웠고, 기본적으로 접속사를 사용하여 절을 문장에 접속시켜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 없이 무언가 절을 문장에 바로 붙여 줄 때 사용하는 접속사는 바로 that입니다.

I know that Tom bought a car.

나는 Tom이 차를 샀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쓰면 ‘that 이하’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즉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 ‘명사절’이라고 부른다는 것과, 이런 that은 ‘명사절접속사 that’이라고 구분해 불러줘야 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이런 that명사절은 보통 ‘~하는 것/~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that을 명사절접속사로 사용할 때 두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접속사 that을 꼭 써야 하는 가’입니다. that이라는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접속사가 없어도 문장을 알아볼 수 있다면 생략되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 만약 접속사 없이

I know Tom bought a car.

이라는 문장을 그냥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문장 내에 동사가 2개이므로, 분명히 생략된 접속사가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that은 어느 위치에서 생략된 것일까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I know that Tom bought a car.

2. I know Tom that bought a car.

1번은 우리가 배운 대로 that절을 명사절로 사용한 것으로, ‘내가 아는 것’은 ‘Tom이 차를 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번으로 예상을 하면 that절은

‘Tom’을 꾸미는 형용사절<sup>16)</sup>이 되어, 내가 아는 것은 ‘차를 산 Tom’이 됩니다. 즉 접속사의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속사는 ‘자신부터 새로운 절이 시작해 하나의 의미로 묶인다’라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긴 하지만 처음에 기초 영문법을 배울 때는 무조건 다 써주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sup>17)</sup> 그리고 학습이 진도를 나아감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that절에 서술된 사건/사실의 진위 여부입니다. 문맥에서 that절 이하의 사건은 확인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문에서 ‘know’, 즉 ‘안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확인이 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면 ‘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즉 that절이 명사절로 사용이 되면 대개 확인이 되었거나 또는 널리 알려진 사건/사실을 전달합니다.<sup>18)</sup> 그럼 다음의 예문은 어떤가요?

**I don't know that Tom bought a car.**

나는 Tom이 차를 샀다는 것을 모른다.

가능한 문장일까요? 한국어 해석을 봐도 뭔가 좀 어색하지 않은가요? 왜 그럴까요? 바로 that절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알려진 사실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16) 2일차 관계절에서 다룬다.

17) 실제로는 예문의 경우 만약 that을 안 적으면 1번의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2번의 의미로 쓸 땐 무조건 that을 써야 된다. 심화서 관계절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18) 생략 등 다른 것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심화서 명사절편에서 다룬다.

데,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하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sup>19)</sup> 즉 상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면 안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써야 논리적일까요? 모른다고 했으니 확인이 안 된 사실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접속사가 바로 ‘whether (or not)’입니다. whether도 주로 접속사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한국어로 뜻은 ~인지 (아닌지)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술할 때 사용됩니다. 즉

**I don't know whether (or not) Tom bought a car.**

나는 Tom이 차를 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한국말로도 훨씬 논리적인 문장이 되었지요? 이렇게 whether절을 명사절로 사용하면 보통 확인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전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whether절이 명사절로 사용되면 (or not)은 꼭 쓰지는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국말로도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라는 말에서 ‘아닌지’는 굳이 필요 없지요?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sup>20)</sup>

이렇게 기본적인 that과 whether명사절의 성질을 배우면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바로 that절은 주로 긍정문에, whether절은 부정문에 사용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ant to know [that / whether] Tom bought a car.**

19) don't이라는 현재시제가 didn't라는 과거시제로 바뀌면 맥락에 따라 가능하기도 한데, 심화서에서 시제편을 먼저 공부한 뒤에 명사절편에서 다시 다룬다.

20) whether절이 부사절로 사용되면 반대로 or not을 쓰는 것이 원칙으로, 심화서의 부사절편에서 상세히 다룬다.



위의 예문에서는 that이 맞을까요 whether가 맞을까요? 문장 자체는 부정문이 아님에도 정답은, whether입니다. ‘want to know’라는 말은 생각해 보면 모른다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안다/모른다는 꼭 긍정/부정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that명사절이나 whether 명사절도 긍정/부정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싶다’라는 뜻은 ‘궁금하다’라는 말과도 뜻이 같습니다. 따라서 wonder라는 동사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I want to know whether Tom bought a car.**

나는 Tom이 차를 샀는지 알고 싶어.

**= I wonder whether Tom bought a car.**

이렇게 두 예문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if라는 접속사인데, if가 명사절로 사용되면 whether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I wonder whether Tom bought a car.**

**= I wonder if Tom bought a car.**

이렇게 됩니다. 단 이런 명사절 if는 주어/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사용이 안 되고 wonder같은 동사의 목적어로만 가능합니다.<sup>21)</sup>

21) if절이 부사절로 사용이 되면 사용법이 다른 것과 관련이 깊은데, 심화서 부사절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1.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으며, 확인되거나 알려진 사실에 주로 사용된다
2. whether (or not) 역시 명사절을 이끌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사용되고, 명사절로 사용될 때 or not은 쓰지 않아도 된다.
3. if절은 whether절이 wonder, ask 같은 동사와 같이 사용될 때 한하여 같은 의미의 명사절로 사용될 수 있다.

# Lesson 14

## 의문사 명사절 - 의문대명사

앞선 레슨에서 기본적인 명사절접속사인 that과 whether/if 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접속사들의 특징은 독립적인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사건/사실 관계를 문장 내에서 명사로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이번엔 의문사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at Tom bought a car.

→ I know that Tom bought something.

예문의 첫 문장은 that절 안의 목적어가 'a car'이며, '나는 Tom이 차를 산다는 것을 안다'로 해석됩니다. 이 목적어 'a car'를 만약 두 번째 문장처럼 something으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될까요?

1. 나는 Tom이 뭔가를 샀다는 것을 안다.

2. 나는 Tom이 뭘 샀는지 안다.

1번은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샀다는 것을 '안다'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에 반해 2번은 산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뜻입니다. 영어 예문의 두 번째 문장은 이 중 몇 번째 의미일까요? 네. 바로 1번의 의미입니다.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라는 모호한 명사를 지칭할 뿐, 절에서 메

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that절에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a car’가 ‘something’만으로 바뀌면 계속 사실 관계를 전달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만약 2번의 의미로 문장을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샀다’보다 ‘무엇’이 명사절 안에서 더 중요한 의미로 부각됩니다. 이렇게 문장이나 절에서 동사 이외의 부분이 동사보다 더 의미적으로 중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중 한 부류가 바로 이전 레슨에서 공부한 의문사입니다. 즉

I know that Tom bought something.  
→ I know that Tom bought what.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현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들은 문장/절 내에 사용되면 그 의미상 자신이 속한 문장/절 맨 앞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I know that Tom bought what.  
→ I know that what Tom bought.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의문사가 그 성질상 자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의문사는 사용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문장이나 절 맨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의문사와 관련된 주어 동사는 그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그 뒤로 문장이나 절이 나온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것은 의문사

가 바로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의문사들은 의문문을 이끌 뿐 아니라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 위의 예문 중 ‘what’이 이동한 두 번째 예문은 결국 접속사가 두 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쓰지 않아야 할 텐데, 어느 쪽일까요? 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바로 that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1. that은 의미가 없는 반면 what은 의미가 있어 생략 가능한 것은 의미가 없는 접속사이고 2. that은 접속사 역할만 하는 데 반해 what은 접속사 + 명사 (예문의 경우 자기 절 내의 목적어를 대신)의 역할을 행하기 때문에 what을 지우면 남은 that절은 목적어가 없는 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절을 이끌면 그 자체가 접속사가 되어 that은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I know what Tom bought.**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what’은 의문사 레슨에서 배웠듯 의문대명사라고 합니다. 즉 의문대명사는 의문문을 이끌 뿐 아니라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sup>22)</sup>, 또 대명사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끄는 문장 또는 절 안의 명사인, 대개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문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that Tom bought a car.**

**→ I know that somebody bought a car.**

22) 문법책에 따라서는 이런 what절을 관계절로 분류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심화서 관계절편에서 다룬다.

예문의 두 번째 문장은 ‘누가’ 샀는지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샀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요? 네. 바로 누군가가 ‘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샀는지를 안다는 문장으로 바꿀 때도 역시 의문사가 사용됩니다. 즉 ‘somebody’라는 명사를 의문사로 바꾸는데, 이번엔 사람이니 ‘who’로 바꾸면 되고<sup>23)</sup>, that은 당연히 지워야 합니다.

I know that who bought a car.  
→ I know who bought a car.

마지막으로 예문을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소위 의문대명사로 분류되는 단어들은 크게 사람에 관련된 who계열과 사물에 관련된 what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사물에 관련하여 which도 역시 의문대명사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뜻은 what의 경우는 대상군이 모호한 상태에서 사물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반해 which는 ‘어는 것’이라는 의미로 맥락상 대상군이 있는 상태에서 사물을 지칭합니다.

**I know what Tom bought.** - 나는 Tom이 무엇을 샀는지 알아.  
(먼저 거론된 맥락은 없고, 화자는 Tom이 산 물건의 대상군을 몰랐음)  
**I know which Tom bought.** - 나는 Tom이 어느 것을 샀는지 알아.  
(화자는 Tom이 산 물건의 대상군을 알고 있었음)

23) 대신하는 명사가 주어면 who를, 목적어면 whom을 쓰는 것이 기본이다.

1. 의문사들은 그 성질상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다.
2. 의문대명사는 의문문뿐 아니라 명사절을 이끌 수 있고, 사용되면 자신이 속한 절 안의 명사 하나를 대신한다.<sup>vi</sup>
3. 의문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가 사람이면서 주어면 **who**, 목적어면 **whom**을 쓰고, 사물일 경우 **what**과 **which**를 주어/목적어와 상관없이 쓸 수 있지만 의미적 차이가 있다.

## 미주

- i 엄밀한 의미에서 문장 전체 수식과 동사 수식은 다른 의미이다. 의미적으로 문장 전체 수식은 주어를 포함한 동사 이하의 전 내용을 수식하지만 동사 수식은 동사 자체만 수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험 공부나 기초 영문법 공부에서 너무 세세한 것을 따지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문두에서 comma로 분리된 부사는 동사 수식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하다.
- ii 조동사도 의미와 기능에 따라 화법(modal)이나 부가(auxiliary)등으로 세부 분류하기도 하나, 기본 영문법에선 ‘helping verb’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하다.
- iii 분사나 동명사 등은 사실 어미변화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한국어와는 같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영문법을 공부하기에 편리하다.
- iv 목적어나 보어가 없어서 동사와 같이 쓰이는 명사가 한 개 밖에 없는 완전 자동사의 경우는 그 명사가 무조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주어표시의 문제가 없어 동사 자체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것은 심화교재에서 다룬다.
- v 사실 예전엔 도치가 가능했다. 즉 “Went Tom home?”이 과거에는 의문문으로 쓰였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사실상 쓰이지 않으므로 수험 대비나 기초 영문법 공부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 vi 보통 한국 영문법 시험이나 토익 시험 수업에서 가르치는 ‘that절은 완전한 절, what절은 불완전 절’이라는 것이 이것에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결론적인 문장의 모양만 암기하면 영어 문장 구성원리를 모르게 된다. 정확히는 의문사가 명사 하나를 대신하면서 절두로 이동한 것이 맞는 이해이다.
- vii 의문사들이 이끄는 절은 의미가 맞으면 명사, 형용사, 부사자리에 다 쓰인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이런 의문사절을 명사절 또는 관계절로 분류하는 것에 이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본 교재와 심화서에선 ‘접속사를 포함한 절이 문장 내 위치한 품사적 자리’에 따라 명칭을 사용할 것이며, 이런 경우는 when을 포함한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목적어, 명사자리에 위치하므로 명사절로 분류한다.